

국방부 발행 역사자료집 ‘계엄史’, 5·18 왜곡 수단

계엄史 5·18 왜곡 내용 보시

**전남대생 미리 돌 준비 투척
직장예비군 습격 탄환 탈취
계엄군에 기관총 무차별 사격
최수 탈출시켜 폭동 합류 기도
약탈·방화 광란의 무법도시**

‘치안부재의 무법천지, 약탈이 광란하는 공포도시’(계엄사 중)
국방부가 발행한 계엄사령부 역사자료 집인 ‘계엄사(史)’ 곳곳에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내용이 수두룩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지난 30일 ‘계엄사’ 등 비밀이 해제된 문서 16건을 5·18특별조사위

특조위에 제출한 자료 신뢰성 여부 면밀히 살펴봐야

원회(특조위)에 제출한 상태다.
5월단체 관계자들은 그동안 신군부의 전방위적 5·18 왜곡·훼손 행태가 대부분의 자료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국방부가 특조위에 제출한 자료들에 대해서도 신뢰 여부 부터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지난 31일 광주일보가 입수한 ‘5·18민주화운동자료총서’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계엄군의 역사를 담고 있는 ‘계엄사’는 1980년 5월18일부터 27일까지 계엄사령부가 기록한 일지 등도 게재돼 있다.
신군부는 계엄사에서 5·18은 전남대학생들의 과격 시위로 발발했다며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계엄사에 적시된 5월18일 기록을 살펴

보면 ‘오전 9시경 전남대학생 200여명이 대학 정문에서 계엄군에게 도서관 출입을 요구하다가... 사전에 은닉·지참한 돌을 책가방에서 꺼내 투석, 대치함으로써 광주 사태는 시작됐다’고 적혀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회고록에 이를 인용해 “주변에 돌을 주을 만한 곳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학생들은 돌을 미리 가방에 담아 왔던 것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은 학생들이 미리 돌을 준비하지 않았고 계엄군이 무자비하게 구타하자 대응 차원에서 주변의 돌을 주워 던졌다고 증언했다. 전 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당시 전남대 정문에는 아파트 공사 현장이 있어 주변에 벽돌 등이 많았다는 게 목격자들의 일관

된 증언이다.
계엄사에 적힌 5월20일 내용도 이미 확인된 사실과 크게 다르다. 계엄사는 이날 ‘극렬분자들은 직장예비군을 습격, 총기 및 탄약을 탈취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2일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의 전남경찰 역할 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시민들은 5월20일 밤 실탄이 없는 칼빈 17정을 획득했으며 본격적인 무장은 계엄군의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 이후인 5월21일 오후 1시 30분께라고 공식 발표했다.
도청 앞 집단발포가 있었던 5월 21일의 계엄사 기록은 왜곡이 극에 달한다. ‘노동자들은 탈취한 기관총을 고층건물 옥상에 설치하고 계엄군에 대해 무차별 사격을 가해 사상자를 발생케 했다’, ‘죄수들을 탈출시켜 폭동에 합세시킬 목적으로 광주교도

소를 5회에 걸쳐 습격하였으나 계엄군의 강력한 저지선을 뚫지 못하고 쌍방간 다수 사상자를 발생케 했다’, ‘광주시내는 총기 난사, 약탈, 파괴, 방화 등이 광란하는 무법천지의 공포도시가 되고 말았다’ 등이 주요 내용이다.
계엄사의 5월26~27일 부분은 신군부의 뻔뻔함까지 엿보인다. ‘군은 끝까지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염려해 최소한의 자위권마저도 자제하였으며 비록 군인이 노동자들에게 잡혀 무참히 난자(亂刺) 살해되는 것을 보면서도 발포를 억제, 사태악화 방지에 노력했다’고 첫줄을 적고 있다.
마지막은 ‘계엄군은 27일 새벽 1시를 기해 특정 진압작전을 전개했으며 새벽 5시경에는 큰 피해없이 광주시내를 장악함으로써 그간의 무법천지는 종식되고 질서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자평까지 했다.

제보를 받습니다
헬기사격 및 전투기 출격 대기 관련
광주일보 : 062) 220-0633
국방부 5·18특조위 : 02) 748-0975

1997년 대법원 판결, 2007년 국방부 과거조사위원회 등에 따르면 5월27일은 계엄군의 진압작전으로 도청에서만 시민군 16명이 희생됐다.
지역 5·18연구회는 “육군본부가 ‘계엄사’를 발행한 1982년은 전두환 정권의 권력이 가장 높았을 때”라며 “이때부터 역사왜곡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특조위원들이 신뢰성 여부를 잘 살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기무사, 1996년 전두환 수사하던 문무일 검사 집중 사찰

〈현 검찰총장〉

**수사팀 배제 의견 제시 문건 확인
조승형 전 헌법재판관도 뒷조사**
국군 기무사령부가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수사하던 문무일 검사(현 검찰총장)를 집중 사찰하고, 수사팀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당시 문건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지난 31일 기무사가 1996년 1월 작성한 ‘5·18 특수부 문무일 검사, 동생이 희생된 피해자 가족’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기무사는 이모 중사가 문 검사 지인으로 부터 들은 내용을 보고한 형식의 이 문건에서 “서울지검의 5·18 특별수사본부 소속 문 검사는 5·18 당시 동생이 계엄군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 가족으로 알려져 피의자 측의 기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무사는 또 “문 검사는 61년 광주시 북

구 유동에서 출생해 80년 광주일고를 졸업하고 고대 법대를 거쳐 86년 사법시험에 합격, 현재 서울지검 특수2부에 소속돼 있으나 서울지검 특수부가 5·18 특별수사본부로 편성돼 5·18 수사검사로 참여(하고 있다)”면서 “5·18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동생이 계엄군 발포로 사망해 현재 피해자 가족 신분”이라고 덧붙였다.
기무사는 특히 “수사검사가 고소·고발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으면 다른 검사로 교체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문 검사를 수사팀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당시 문 검사는 특별수사본부에서 비자금 관련 혐의 수사팀에 배제돼 사실상 5·18 수사에는 관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5·18 당시 문 검사의 동생이 숨진 것은 사실이 아니며, 광주일고 동기생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기무사가 헌법재판소를 사찰한 정황이 담긴 문건 2종도 함

께 공개했다. 검찰은 1995년 7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했고, 고소·고발인들은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각하 결정할 것이라는 정보가 새서서 청구인들이 소송을 취하해 심판이 중단됐다.
기무사는 이와 관련, ‘헌재 연구관, 5·18 검찰 결정에 부정적 인식’이라는 문건에서 “연령이 비교적 젊은 계층의 연구관 상당수가 검찰의 결정 처분과 5·18 사건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이후 헌재 결정 내용이 유출되자 기무사는 ‘5·18 관련 헌재 결정내용 사전 누설자 조승형 지목’이라는 문건에서 “조승형 재판관은 전남 장흥 출신으로, 김대중 총재 비서실장을 지낸 후 평민당 추천으로 재판관에 임명됐다”고 지목하기도 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불법조업 중국어선 또 나오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34.4km 해상에서 지난 30일 밤 10시10분경 목포해경이 규정보다 작은 그물코 어망으로 조업을 한 중국 유망어선 A호(146t)를 나포해 조사하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10월 한 달간 불법 그물을 사용한 9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해 어획물 7.5t을 압수하고 담보금 6억 6000만원을 부과했다. 〈목포해경 제공〉

위험한 다이어트 한약 제조 판매 일당 적발

**장기 복용 뎀 심장마비 우려
82억여치 3만7000명에 팔아**

한 의사 처방 없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한약을 만들어 3만7000여명에게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고모(46)씨를 구속하고 한약사 6명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들은 2007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일반인 취급이 금지된 한약재 ‘마황’을 첨가한 일명 다이어트 한약 82억원 상당을 제조, 3만7000여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황은 주성분인 에페드린이 교감신경을 자극해 식욕 감퇴를 유발하는 등 일

시적인 다이어트 효과가 있지만, 장기 복용 시 불면, 심장마비, 뇌졸혈 등 부작용이 있다. 한의사 처방을 받아 자격증이 있는 한약사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한약사 자격증이 없는 고씨와 친인척 3명은 광주 관산구에 간이 공장을 마련한 뒤 마황을 주원료로 하고,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10여개 한약재를 섞어 만든 다이어트 한약을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광주, 수원, 성남, 대전 등 전국 곳곳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한약사, 상담원 23명을 고용해 전화를 통해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했다.
소비자들은 일시적으로 체중 감소 효과를 봤으나 장기 복용하면서 부작용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흥기 28개 차고 다니며 위험

○~광주에서 대통령 경호원을 자처한 정신질환자가 온몸에 흥기 28개를 차고 다니며 주민을 위협했다가 경찰서행.
○~지난 31일 광주 북부경찰청에 따르면 김모(45)씨는 이날 오전 11시 40분경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흥기 28개를 몸에 두르거나 손에 들고 “네가 박근혜 욕했느냐. 죽여버리겠다”며 50대 주민을 위협했다는 것.
○~피해 주민은 경찰조사에서 “며칠 전 김씨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방했는데 이후 대통령을 욕했다며 흥기를 들고 자신을 찾아다녔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김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조치하는 한편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옛 광주교도소 발굴 조사 오늘부터 사전작업

5·18재단, 법무부와 실무협약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5·18 민주화운동 행방불명자 압매장지 발굴조사를 추진하는 5·18기념재단 등이 법무부와 실무협약을 맺고 1일부터 사전작업에 들어간다.
지난 31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이날 5·18재단과 법무부는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유해 발굴을 위한 실무협약’을 체결하고 옛 광주교도소 발굴계획을 협의했다.
협약에 따라 발굴 주체는 5·18재단이

맡으며 법무부는 현장부지 제공, 광주지방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
발굴 범위는 옛 교도소 부지 내로 한정했고, 유해 흔적이 발견되면 광주지방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한다.
협약식에 앞서 열린 회의에서는 발굴계획, 일정, 인력, 안전문제, 날씨에 따른 대책, 장비, 유골 수습·감사·보관, 현장 관리 등을 점검했다.
5·18재단은 회의에서 법무부에 신속히

발굴이 이뤄지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내부 눈의절차를 거쳐 발굴 조사를 승인하겠다”며 “준비 작업은 협약식 다음날부터 시작해도 좋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5·18재단은 1일부터 옛 교도소 부지에서 발굴전문가그룹 등과 작업 대상 지역 표시, 잡초 제거 등 사전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애초 논의했던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참여는 배제하기로 했다. 국방부가 보유한 장비는 땅속탐사레이더(GPR·Ground Penetrating Radar) 등 법무부가 제안했던 첨단 탐지 장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영광 전원주택 매매

**전원주택
광주에서 30분**

즉시입주가 가능
최근 리모델링 완료

토지 151평, 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

시세가 **1억3천만**
매가 **9천4백**

직매 010-6670-9800

수기동 상가 매매

**천변로 전망최고
20층 중 6층**

45평 (주차완비)
고급시설 (리모델링 5천만투자)

보 1천 월 60만

시세가 **1억 5천**
매가 **9천7백 (용5천)**

직매 010-6670-9800

경매 (주)대신경매

북구 용전동 (병동참고)
토지 700평 건물 500평
감정가 35억 → 최저가 19억4천

1) 서구 품암동 아파트 지하상가 전용 50평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
감정가 2억 → 최저가 2억

2) 서구 벽진동 (주택)
토지 111평 건물 18평
감정가 2억2천 → 최저가 2억2천

3) 북구 문충동 모야A,P,T (33평)
감정가 1억9천5백 → 최저가 1억3천6백

4) 광산구 신창동 부영A,P,T (33평)
감정가 2억3백 → 최저가 1억4천2백

5) 광산구 월계동 (침단지구 9층중 2층상가)
토지 23평 전용 86평
감정가 5억4천 → 최저가 3억8천

6) 장성군 북일면 (병원)
토지 33,659평 건물 1,505평
재활 요양병원
감정가 32억 → 최저가 23억

010-7384-7800 010-6670-9800

경매교육

1) 기초이론반 (무료)
▶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경매 기초 배우실분

2) 실전반
▶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경매기초 + 실전경매

3) 경매 투자반
▶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특수경매, NPL부실채권)
바로 수익창출 하실분
입찰부터 매매임대, 개발까지 원스톱 진행

※ 공동 사무실 쓰실분
(무료제공)
경매교육, 컴퓨터, 책상
경매 입찰부터 매매까지
경매컨설팅
직업으로 하실분
공동사무실 이용하실 분
010-6670-9800

010-6670-9800